



(3) 애굽의 아브람과 사래: 복이 시작되다 (12:10-13:1)

창세기 12:10~13:1의 교차구조

- A. 아브람과 사래의 내려감 (12:10)
- B. 아브람이 사래에게 지시하다 (12:11-13)
- C. 바로가 사래를 유괴하고 주님이 간섭하다 (12:4-17)
- B'. 바로가 아브람과 자기 사람들에게 지시하다 (12:18-20)
- A'. 아브람이 올라감 (13:1)

중요내용

1.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 역사하심(12:3).
2.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바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책망하심.
3. 아브람의 중보자적인 위치가 드러남.
4. 아브람과 바로의 만남은 야곱의 말련에 대한 전조(기근과 재앙, 풍요).
5. 아담/아브람 - 에덴/애굽의 대조:
 - *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기만에 순응하여 에덴의 풍요를 상실.
 - * 아브람의 부유함은 바로가 기만에 속았기 때문.
 - * 아브람과 사래가 아담과 하와처럼 복을 위탁하게 했을지라도 주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심.

1) 아브람이 사래에게 지시하다(12:10-13)

10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

11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래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

12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

13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라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라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

- 12:10/ '기근': * 아브라함(애굽), 이삭(그랄), 야곱(애굽) 모두 기근 때문에 이동(12:10; 26:1; 42:5; 47:11-13).

*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가는 것을 금하셨고 야곱은 용납하심.

'거류하려고': 일시적인 거주를 의미. 족장들은 스스로를 나그네로 인식함- '환대'의 관습.

- 12:11-13/ '사래에게 말하되': 아브람의 두려움- 사래의 아름다움이 권력자의 관심을 끌 것.
 권력자는 아브람을 죽이고 사래를 아내로 취할 것.
 '아리따운 여인이라': 우리 시대와 족장 시대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: 아름다움의 기준 혹은 사회적 위치.
 '나의 누이라 하라': * 이복남매인 관계를 이용한 뛰어난 계략
 - 그러나 자기 목숨은 부지하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든 어리석은 계획.
 * 사래의 침묵은 이 일에 대한 사래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남편에 대한 순종을 나타냄.

2) 바로가 사래를 유괴하다(12:14-17)

- 14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
 15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니라
 16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
 17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

- 12:14-17/ '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': 바로의 관리가 사래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 이유
 '재앙을 내리신지라': 애굽에 내릴 열 재앙과 같은 단어. 율법서에서는 피부 질환을 가리킴.

3) 바로가 아브람을 추방하다(12:18-13:1)

- 18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
 19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
 20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
 1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

- 12:18-13:1/ '어찌하여... 행하였느냐': 바로가 어떻게 계략을 알았는지 밝히지 않음.
 '어찌하여... 어찌하여... 어찌하여': 아브라함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바로의 분노를 표현.
 '네 아내를 데려가라': 아브람이 떠날 것을 요구. 아비멜렉(20:7)은 아브람의 거주를 반김.
 '보내었더라': 강제 추방.

(4)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다: 약속 회상(13:2-18)

중요내용

1. 족장 내러티브에서 필수적인 형제 경쟁의 전조 (가인-아벨, 이삭/이스마엘, 야곱/에서).
2. 이스라엘과 모압/암몬 족속 간의 갈등의 시작
3. 롯의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 복의 박탈이 하나님의 선택인 동시에 롯의 선택의 결과임을 나타냄.
4.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'아버지의 집을 떠남'이 완성됨.

1) 다툼(13:2-7)

- 2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
 3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벧엘에 이르며 벧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
 4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
 5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
 6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
 7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

- 13:2-5/ '아브라에게 가축과... 롯도 양과 소와': 바로로부터 얻은 부. 이들의 결별의 원인.
'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': 이전의 예배 처소에서 다시 예배함- 회복에 대한 열망.
- 13:6-7/ '동거': 에서와 야곱이 헤어지기 전 두 사람의 관계를 묘사하는 데 쓰인 말과 같은 말(36:7).
'서로 다투고': *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의 물 분쟁(26:20),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(출 17:2)에 사용된 단어.
* 롯의 배은망덕을 암시.

2) 약속(13:8-17)

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
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
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
11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
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
13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
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
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
16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
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

- 13:8-9/ '친족이라': * 아브람의 롯에 대한 친밀감. 적대적인 환경에서 롯과의 평화로운 관계에 대한 중요성.
* 동쪽의 왕들로부터 롯을 구한 후에 '형제(친족)'를 다시 언급(14:14)
'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':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땅을 자신의 소유처럼 여기고 있음.
'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':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.
- 13:10/ '눈들, 보았다, 물로 적셨다, 파괴했다, 정원, 평원':
* 에덴의 하와(3:6) 및 '하나님의 아들들(6:2)'의 악한 선택을 암시하는 어휘들.
'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': 이 지역의 외관의 아름다움이 무의미함을 암시.
- 13:11-13/ '땅, 도시': 가나안에 머문 아브람과 가나안 주변에 거주하는 롯을 대조- 이삭/이스마엘, 야곱/에서
'여호와 앞에서 악하며': * 소돔 멸망은 홍수 기사와 맥을 같이하며,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심판이 정당함.
'소돔': * 고모라와 함께 평원의 다섯 도시에 속한 도시. 성경에서 사악한 이방의 전형으로 등장.
* 소돔의 범행은 성적 범죄를 넘어 외지인(나그네)과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는 사회악도 포함.
* 후대 유대교와 기독교 해석가 사이에서도 타락의 표준으로, 심판의 혹독함의 기준으로 제시.
'큰 죄인': 소돔의 범죄가 유례를 찾기 힘든 예외적인 것이었음을 암시- 하나님을 대적함.
- 13:14-17/ '너는 눈을 들어... 주리라':
* 아브람에게 눈으로 본 땅을 약속하심으로 자기가 거주할 땅을 '눈을 들어 본' 후에 헤어진 롯과 대조.
'네 자손에게... 영원히': * 후손과 함께 땅을 약속하심. 이 약속은 할레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유효한 언약.
'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... 주리라': 거듭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브람은 땅과 후손이 없음.

3) 아브람이 예배하다(13:18)

18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

- 13:18/ '제단을 쌓았더라':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브람의 대응. 즉각적인 반응으로 약속에 대한 확신을 나타냄.
'마므레, 헤브론': * 펠레스타인에서 가장 고지대. 아브람과 이삭의 주요 거주지. 가족 매장지인 막벨라 굴 인근.
* 다윗이 유다를 7년 반 동안 다스린 곳- 다윗이 약속을 계승하는 왕임을 증거.